

제목: 국사편찬위원회의 방문과 한국의 사료전자화

이름: 오오누마 타쿠미

소속: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전공: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2016년 3월 현재)

최근에 한국에서는 역사사료의 전자화를 급속히 진행하고 있어 일본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료를 읽을 수 있다. 아는 한국인 연구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의 지방에 있으면서도 연구할 시대나 분야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료는 전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전자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이러한 상황은 일본사 연구자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된다. 이번 워크샵으로 방문한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러한 한국의 역사사료 전자화를 상징하는 기관이고 방문 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게재되고 있는 사료는, 활자화된 사료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에 따라 원문이나 국역도 볼 수 있어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자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스스로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워크샵에서는 지금까지 활용해왔던 활용법 이상으로 편리한 이용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있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목록을 Excel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또한 사료 인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도 있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한편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전자화로 인한 문제점도 실감하게 되었다. 즉 사료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종이매체사료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에 방문한 기관 중에는 종이매체의 잡지나 책의 입가가 이전과 비교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기관이 적지 않았다. 또한 이전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주 발행되던 종이매체의 사료집도 급속히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자사료는 편리하지만 실제로 사료를 잘 읽기 위해서는 종이매체의 사료집이 필요할 때가 많다. 또한 자신이 구하고 있는 내용의 사료가 검색한 단어에 걸리면 목록을 작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최근의 일부 젊은 한국사 연구자의 논문 중에는 인터넷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사료 인용법도 자주 확인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화의 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사료의 전자화의 가치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방문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각종 사이트에서의 사료검색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들은 후에 사료를 검색한 결과 내 연구와 관련이 있는데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많은 사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국사편찬위원회의 사업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에 있어서의 격차를 줄이고 한국사 연구의 진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에 관한 시민용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 한국사 교육의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한국과 같은 전자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고 종이매체의 사료집 발행도 많지 않다. 물론 인터넷사이트에서의 교육활동도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규모로 행해지고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연구자·학습자는 한국에 비해 불편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본에도 한국과 같은 일을 기대하고 싶고, 또 이미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그 대책이 고려되어 갈 것을 기대하고 싶다.

스스로에게 있어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사료 전자화의 현장을 볼 수 있었고 그 활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실감하고 있다.